

남구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이달 착공

건물 노후화로 신축 결정 2층 교육·연습실 등 갖춰 이르면 2020년 3월 개관

붕괴 위험 등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중단된 광주 남구 고싸움놀이 전수 교육관 신축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2020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내년 연말까지 건물 신축 공사를 끝마친 뒤 2020년 3월까지 영상관 등 내부시설 조성 공사도 완료해 광주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6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고싸움놀이 전수 교육관 신축 공사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지어지는 고싸움놀이 전수 교육관은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한옥 지붕 건물로, 연면적은 1,151㎡ 크기로 기존 건물보다 243㎡가 더 큰 면적으로 지어진다. 1층에는 88고 교육실을 비롯해 고 제작 작업실, 물품 보관창고, 사무실, 자료실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칠석 고싸움놀이 농악단 연습 공간과 고싸움 교육실, 고소리 및 줄패장, 다목적실, 영상관, 휴게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고싸움놀이 시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발코니 형태의 관람석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고싸움놀이 축제 시 고싸움 시연 모습을 가장 좋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 고싸움놀이 전수 교육관의 개관 시점은 이르면 오는 2020년 3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 신축공사를 내년 11월말까지 완료한 데 이어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내부 시설 조성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새롭게 지어지는 고싸움놀이 전수 교육관은 우리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고싸움놀이를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통 놀이문화인 고싸움놀이가 후대에 전수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고싸움놀이 전수관은 지난 1987년 새마을회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로, 1998년 3월 고싸움놀이 전수관으로 용도 변경돼 2층으로 증축된 바 있으나 건물 노후화로 바닥면 균열과 붕괴 위험으로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사용이 제한됐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협의회 5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 여성단체 활동가 80여명 진주서 리더십 워크숍

광주 여성단체 활동가 80여 명이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경남 진주 등에서 '2018 여성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재단, 광주YWCA, 여성경제인, 인문인 등 33개 여성단체 활동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지역 여성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하고 지역 여성단체 간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강동욱 진주문화원장, 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의 '진주성 전투와 호남의병, 그리고 논개', 김명화 교육학박사의 '나 너 우리마을 바르서기', 고현 예술심리연구소장의 '도형심리로 본 나의 기질 찾기' 등 특별 강연,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모여 있는 진주성, 산청 등의 보고감촌, 삼림숲과 개펄마을, 축석루, 진양호 등 탐방이 준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청소년 중국어 대회...24일 5·18문화센터

광주시가 후원하고 (사)인재육성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중국어 대회'가 2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대회는 초·중·고·대학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10일까지 참가신청서, 발표영상파일, 발표원고, 재학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이메일(gochina@chinesecontest.co.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예선은 제출한 원고와 중국어 말하기 동영상으로 심사하고, 예선을 통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본선대회가 열린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광주광역시시장상,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장상, 고차이나 상 등을 수여하며, 본선대회 입상자 전원에게는 중국대학 학사 4년 장학생, 석사 3년 장학생, 2주 단기연수권 등 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청소년 중국어 대회 홈페이지(www.chinesecontes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북구 청소년 육성 4개 분야 20개 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는 6일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참여활동 지원, 청소년 자립·보호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인 북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단체·유관기관 관계자, 인근 주민들을 만나 예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청소년 지원·보호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구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과 함께 진로체험, 청소년 job스캐치, 수능콘서트,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을 비롯한 직업탐방, 창업·전문동아리 육성 등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2일 광주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가 개최한 '제4회 지속가능발전 논문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대학생 논문 경연대회...5개팀 선정

'지속가능발전교육...' 대상 '도시농업'·'미세먼지' 등 출품

광주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가 최근 대학생들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해 보는 '제4회 지속가능발전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과 광주 5차의제의 17개 의제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연관된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주제와 맞춰 연구·작성한 후 논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2일 열린 결선에서 총 5개팀이 선정돼 발표심사가 이어졌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예비 초등교사의 인식 제고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김소정·정철은(광주교육대)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 양봉을 통한 광주광역시 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황소미·박선진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학가 주차공간, 광주천 외래침입식물, 미세먼지의 인식실태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김소정·정철은 팀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예비 초등교사의 인식 제고 방안' 논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병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광주대 교수)은 "지속가능발전은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화두"라며 "대학생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출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보증을 거친 후 보고서로 출간, 향후 대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과 5차의제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2015년 UN에서 193개국의 합의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지역 실천과제를 5년 단위 의제로 작성해 추진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발전협의의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보호시설 청소년 8명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봉사활동·교류 행사

해외 봉사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전한다. 광주시는 6일 "보호시설 청소년 8명이 광주지역 의료진을 포함한 (사)아시아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 해외의료봉사단 30여 명과 함께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 실천을 위해 8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캄퐁스푸주에 위치한 광주진료소를 찾아 의료봉사와 문화교류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안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진료를 하고,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그림그리기, 배드민턴, 축구,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게 된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광주시가 나눔과 연대를 통한 광주정신의 국제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개소해 올해로 5년째 운영되고 있다. 현지 의료진을 채용해 하루 평균 현지인 30여 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의료봉사단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며 광주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네팔 현지 광주진료소와 몽골 치과차량 이동진료소를 운영하며 의료시설이 열악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민중·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아시아에 전파하는 일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